

# 강기정 광주시장,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환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환담하고, 역사적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환담은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을 겪은 광주와 제주가 아픔을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양 도시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환담에는 강기정 시장,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대욱 제주시지부장과 김효자 부녀회장 등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와 제주는 국가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아픔을 인권과 평화의 가치로 승화시켜 왔다”며 “이번 만남이 두 지역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의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욱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장은 “광주시의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광주와 제주가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환담에서 강 시장은 5·18과 4·3에 대한 역사왜곡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제주4·3 가족들은 오랜 시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 아픔을 삭여왔다. 평화·인권 연대를 통해 함께 힘



## 한국현대사 비극 겪은 광주-제주, 평화와 인권 연대 강화 강 시장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축하… 평화다리 놓자”

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또 제주4·3기록물이 지난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에 대한 축하 인사도 건넸다.

김효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 부녀회장은 “4·3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를 만겨 주셨듯이 오월어머니들이 제주에 오시면 누구보다 반갑게 맞이하겠다. 5월의 빛과 같은 오래도록 따뜻하게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2024년,

2025년 2년 연속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한편 유족회 간담회 등을 통해 4·3과의 평화연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산하 21개 지회가 광주시를 방문하는 등 연대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제주4·3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지속하며 세계인권도시로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전광춘 기자



## 광주 서구 ‘천원택시’ 착한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

### 사업 시행 100일... 의료 취약계층 교통복지 큰 호응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의료 취약계층 교통복지 정책 ‘천원택시’가 시행 100일을 맞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천원택시’는 중증질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할 때 ‘천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을 서구가 지원하는 교통복지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중증 암·난치성(희귀)질환자, 결핵·중증 화상환자 등 1100여 명으로, 서구는 이들에게 매일 택시 이용권 2매씩 제공하고 있다.

택시 이용자가 1천원만 내면 광주권은 최대 2만원, 화순전남대병원원 최대 3만원까지 서구가 지원한다. 사업 시행 100일간 398명이 총 976회 택시를 이용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은 1000만여 원에 이른다.

서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주빛고을콜택시와 협약을 맺고, 이용자가

전용번호로 전화하면 곧바로 택시가 배차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이 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 목적사업과 연계해 ‘착한 동행’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 정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호동에 거주하는 김모씨(72세)는 “정기적으로 화순전남대병원에 다니는데, 예전에는 왕복 5만원 이상 드는 택시비가 부담돼 버스를 탈 때도 많았다”며 “천원택시 덕분에 치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어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전했다.

9일 ‘천원택시’ 운영 현장을 찾은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가 가장 좋은 복지”라며 “착한 택시를 이용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은 1000만여 원에 이른다. 서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주빛고을콜택시와 협약을 맺고, 이용자가

전라남도도는 지난 7일까지 3박 4일간의 몽골 공식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 공동 대응과 통상·농업·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남도 최초 몽골 방문으로,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교류 협약을 비롯해 농업기술 협력, 관광홍보, 문화교류, 수출상담회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방문의 핵심 성과는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교류 협약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울란바토르시청에서 아마트부브신 압갈란바타르 부시장과 협약을 하고, ▲통상·산업 ▲농업·축산 ▲교육·청년교류 ▲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 지속가능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의 스마

## 전남도-몽골, 기후-농업-문화 교류... 협력 파트너십 강화 수산 가공식품-유기농 화장품 등 인기... 수출 확대 가능성 확인

트립 기술을 활용해 몽골의 다양한 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농업기술 협력이 나서기로 했다.

첫 공식 일정으로 기후위기 대응,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 산림청과 진행한 ‘우호의 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는 최근 기후 변화와 사막화로 황사 발생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 국제수목비엔날레 등 메가 이벤트와 청정 관광자원, 미식과 웰니스 관광지 매력을 알린 전남 관광설명회는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선 몽골 관광협회와 현지 여행업계,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에는 없는 섬, 바다, 갯벌 등 정경 자연환경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예술·역사·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등을 현지 여행사에 홍보했다.

또한 전남도는 국내 협력여행사인 ㈜에이앤더티, ㈜여행공방과 함께 몽골인 특화 전남 관광상품을 개발해 소개하고, 현지 여행사인 ‘만도라(MANDORA)’, ‘뉴질친(New-JUULCHIN)’과 업무협약을 통해 몽골인 관광객 연간 5천여 명 유치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과 울란바토르시가 공동 주최한 ‘2025 한국주간(Korea Week)’ 행사에 전남이 주관 지자체로 참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남의 수준 높은 무대로 현지인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몽골 방문 성과에 대해 “전남과 울란바토르는 기후위기 대응, 경제·관광 교류, 농업·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남이 아시아 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전남의 경제 영역을 확장하며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적 장부 현황화 정비에 나선다. 남구는 9일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을 조성한 뒤로 현황과 지목이 다르게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 일체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공공사업 준공 이후에도 지목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 신뢰 저하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

## 광주 남구, 공공용지 지적공부 현황화 추진 정확한 정보 제공-공공재산 관리 효율성 향상

한 것으로, 남구는 지목을 현황에 맞게 변경함과 동시에 동일 용도의 인접 필지를 합병해 공적장부의 공신력 향상과 재산관리의 효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및 항공사진을 활용해 정비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인·허가 및 준공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를 일체 정비하기로 했다.

또 동일 용도로 세분된 토지의 합필 자

료를 재산 관리부서에 일괄 제공해 신속한 행정처리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은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목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토지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 북구, 광주 최초 ‘정당 현수막 관리시스템’ 운영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민원 발생이 잦았던 정당 현수막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북구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실시간으로 현수막 상태 확인 및 철거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을 일일이 수기로 집계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식별피 부착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게시 기간이 경과된 현수막 정비가 늦어져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정비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북구는 ▲정당 현수막 정비계획 수립 ▲동 행정복지센터 식별피 부착 및 대장 관리 ▲현수막 관리를 위한 정당 협조 요청 등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현수막 수량 증가 및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관리에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지난달 ‘정당현수막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온라인 기반의 실시간 관리체계 운영에 돌입한다.

당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식별피 부착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정당 현수막을 관리했던 방식에서 정당에서 직접 현수막 게시 위치와 기간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추후 철거 대상 현수막을 자동으로 분류해 단속에 효율성을 더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정당 현수막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져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 사항 해소를 통해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